

# 농수산물 수출

## Zoom In 88호

I

농촌진흥청-전북농업기술원  
‘씨없는 수박’ 수출협력 협의회 개최



II

21년산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검역단지 운영 계획 마련



III

‘21년산 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 송부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88호 2021. 7. 3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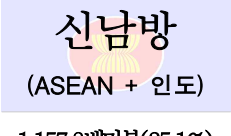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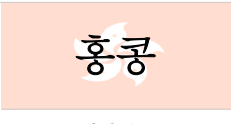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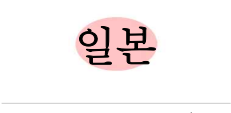


‘21.6.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54.1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b>11.4%</b> 717.6백만불	  <b>16.2%</b> 3,435.4백만불	  <b>14.2%</b> 1,248.7백만불
+ 인삼류, 김치, 딸기, 유자 - 닭고기, 버섯류, 배, 밀	+ 라면, 커피조제품, 음료, 장류 - 연초류, 소주, 맥주, 생우유	+ 김, 참치, 굴, 어묵 - 미역, 고등어, 붕장어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b>미국</b> 816.2백만불(15.0%)	ShopRite LPGA 홍보행사 2차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음료(5.2%), 쌀가공식품(26.2%)  김(△0.8%), 라면(△0.6%)
  <b>중국</b> 881.9백만불(18.4%)	편된뒤 연계 유제품·유자차 온라인 판촉 베이징 고급매장 연계 한국산 유제품 판촉 Ole 고급마트 연계 유제품 판촉 점검	 김(54.4%), 음료(68.1%)  라면(△15.8%), 어묵(△10.9%)
  <b>신남방</b> (ASEAN + 인도) 1,157.8백만불(25.1%)	싱가포르 김치+라면 판촉행사 인니 AEON 등 연계 라면 판촉행사	 참치(25.0%), 음료(20.6%)  라면(△1.9%), 닭고기(△32.6%)
  <b>홍콩</b> 218.0백만불(5.3%)	홍콩 식품박람회 장치운영	 맥주(34.4%), 돼지고기(24.2%),  인삼(△14.3%), 라면(△10.5%)
  <b>EU</b> (영국 포함) 330.2백만불(18.7%↑)	파리국제대학촌 밀키트 홍보행사 KFF 행사	 참치(34.1%), 라면(33.5%)  커피(△31.7%)
  <b>일본</b> 996.7백만불(3.5%↑)	김치 판촉행사(6.23~29) 면류 판촉행사(6.21~30)	 김치(24.4%), 참치(33.1%)  굴(△11.0%), 소주(△6.0%)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88호 2021. 7. 30(금)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6.30

## □ 김치

- (일본 44.8, 24.4↑) 코로나19 중점조치(긴급조치 전단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소비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홍콩, 4.2, 15.5↑)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김치 수요 증가세 지속

**86.7백만불(20.1%)**

주요 수출국 : 일본(44.8백만불, 24.4%), 미국(14.8, 30.2%), 홍콩(4.2, 15.5), 네덜란드(3.1, 36.2), 영국(3.2, 68.2), 대만(3.1, 4.5)

## □ 음료

- (미국, 16.0, 51.7↑) 아마존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및 아시안 마켓 중심 건강기능성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바이어 발주 지속 증가
- (중국, 45.6, 27.2↑) 건강식품 관심 증가로 수출호조세 지속
- (일본 14.7, △10.1) 현지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있는 인삼음료(△70.4%)는 수출 부진하나, 홍삼정(55.9%↑)과 백삼정(11.5%↑) 수출 확대 통해 당월 수출액은 증가세로 전환

**255.2백만불(30.3%)**

주요 수출국 : 중국(53.1, 68.1%), 미국(41.0, 5.2), 캄보디아(37.4, △0.5), 베트남(19.7, 43.7), 러시아(11.7, 89.9), 인도네시아(8.4, 67.5)

## □ 유자차

- (일본 2.6, 7.7↑) '홈카페' 트렌드로 가정용 제품(1kg)에 대한 수요 증가
- (필리핀 1.6, 93.5↑)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고함량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체코 0.3, 239.5↑) 유자맥주의 원료로 유자차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서 수출 증가

**25.2백만불(21.5%)**

주요 수출국 : 중국(9.4, 36.9%), 미국(5.4, 2.5), 일본(2.46, 7.7), 홍콩(1.8, △0.3), 필리핀(1.6, 93.5), 대만(1.2, 6.0)

## □ 참치

- (일본, 100.6, 33.1↑) 대형마트 등 소매시장에서의 횡감용 참치의 수요 증가
- (태국 47.0, 10.4↑) 2021년 초까지 가다랑어 어획 호조 및 캔가공업자들의 냉동재고 비축 수요 지속
- (베트남 24.2, 108.8↑) 유럽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참치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서 반사적으로 한국산 참치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

**291.0백만불(29.0%)**

주요 수출국 : 일본(100.6, 33.1%), 태국(47.0, 10.4), 베트남(24.2, 108.8), 프랑스(22.7, 80.9), 이탈리아(18.8, 48.5), 중국(17.4, 18.3)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 농진청 이슈



### 농촌진흥청-전북농업기술원 '씨없는 수박' 수출협력 협의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씨없는 수박' 수출 확대를 위한 '농촌진흥청-전북도농업기술원 수출협력 협의회'를 6월 21일 전북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수박공선출하회 등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농진청 수출농업지원과의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과 기관합동 종합컨설팅(상담) 추진성과를 공유했으며,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씨없는 수박 수출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씨없는 수박 연구보급에 따른 어려움 해소 방안과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고 수박 재배 현장을 방문했다.

'씨없는 수박'은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국가주도 집중육성 18개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로, 전북에서만 한해 5톤가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 수박이 생산되지 않는 10~12월에 씨없는 수박이 수입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5~8월에 씨없는 수박이 생산되므로 일본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화분(꽃가루) 저장, 과일 크기 향상, 숙기(익은 때) 연장 기술 개발 등 고품질 수박 생산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씨없는 수박' 수출국을 넓히기 위해 일본 이외 다른 국가로도 시범 수출을 추진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저장유통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품질 좋은 수박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수출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출 상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실적이 7.7% 증가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앞으로 씨없는 수박 등 지역특화작목 수출확대를 위해 현장중심 기술지원과 연구개발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배 온실



재배 현장 방문



수출 협력 협의회



협의회 참석자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21년산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검역 단지 운영 계획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1년산 우리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출에 앞서 원활한 수출검역 지원을 위해 품목별 수출검역단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된 수출검역단지는 75개시·군 377개 수출단지로 미국·호주 등 13개국에 사과·배·포도 등 우리 농산물 12품목을 수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81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검역 지원 강화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검역현장의 코로나19(변이) 예방을 통해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1년산 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 송부**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베트남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1년도 베트남 수출에 참여할 수출 선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을 베트남측에 송부하였다. 검역본부는 고품질 파프리카가 한류 열풍을 타고 베트남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 검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국산 참외에 대한 검역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